

대구시의회, 오늘 현장의정 활동

영어마을 건설현장 봉제기술연구소 방문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대구영어마을 공사현장과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등을 방문해 현장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이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칠곡군 지천면 연회리 대구영어마을 건설현장을 방문

한다. 대구영어마을은 대구시가 민자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영진전문대학이 285억원의 건립비를 들여 짓고 있다. 영어마을이 건립되면 대구시는 매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월 개교하면 4개월분 운영비 3억5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오후에는 유통단지내 한국봉제기

술연구소를 방문한다.

다음날인 7일에는 달서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내에 건립중인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센터구축현황 및 장비구축현황을 둘러본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경쟁력의 관건인 부품소재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EXCO에서 개최중인 제6회 대구국제광학전(DIOPS)을 참관, 외국 바이어의 관심사항과 지역 특화산업인 광학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